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 · 요셉성일
제33권 15호(다해) 2013·3·10

[묵상]



소경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 1567년, 유화>

죄인들이 예수님께 물려드립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십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자기들과 어울릴 수준인데,
자신들과 상종하지 않는 부류와도
잘 지내는 예수님이 불만입니다.
자기들의 시선으로
세상과 예수님을 재단합니다.

예수님께 물려든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죄인이 됩니다.

돌아온 죄인 작은아들은 아버지 품안에서
소중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만
그를 여전히 죄인으로 여기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은 노예처럼 따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따르지 못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인행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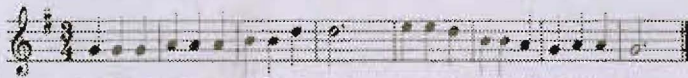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행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홍관 요셉
특 전 미사	(생)김정아 아나스타시아 & 박소영 프란체스카 &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해수 마리아,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한민교 세례자요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재순 야가다, 김순덕 안나, 오창섭 (생)이운조 클라라, 문충한 에드워드 & 문지숙 엘리사벳,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이중원 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가정, 한춘선 루시아 & 이영희 카타리나 & 오일순 헬레나, 정열모 미카엘 & 정미영 미카엘라 가정, 박홍통 요셉, 우현정 안젤라 & 우경석 요한,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가정, 이정자 아그네스, 토런스 동3반 가정,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여호수아기(Exodus) 5,9-12,10-12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 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제 2독서 코린토 2서(2 Corinthians) 5,17-21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 음 루카(Luke) 15,1-3.11-32

영성제송 아들이,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2	152	158
봉헌	364	269	269
성체	하느님 그리고 나	302	284
파견	382	153	15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기도하며 읽는 것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창원, 전구, 감사, 찬미의 기도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관상(contemplatio)으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재를 판단하는 그분의 시각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가?’바오로 성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사실 관상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실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 2,16)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식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또한,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actio)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안에 요약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온순히 받아들이는 본보기가 되시는 마리아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루카 2,19; 참조: 루카 2,51).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과 행위와 사물들을 결합시키는 깊은 연관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동안에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성경 독서가 교회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서 대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행위이기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구속의 관리자로서 분배하고 적용시킨다는 교의를 내포하지만, 또한 성인들의 친교의 교의도 내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각자의 초자연적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느님의 더딘 징별과 무디어지는 우리 양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물론 우리들의 경험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시 벌을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회개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진노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더딘 징별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밟혔다.” (여호 5,12)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엾이 여기시어 모세를 시켜 구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첫 소출을 먹기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내하시어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방랑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카 15,18)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달라는 작은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써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민족과 즉시 아버지께

돌아와 죄를 고백한 작은아들 중, 누가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쩌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과 큰아들이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대한 처사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아버지의 위로의 말에도 큰아들은 시큰둥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다고 마치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회개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2코린 5,19) 만드셨다고 언급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느님의 본심은 우리가 당신과 화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반감을 갖지 말고,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백년도 못살면서 우리는

나무가 어디 터
를 보고 뿌리를

내리던가. 싫다고 물려서지 않고, 이름다 다가서지 않으면서, 제 선 자리가 세상의 전부인 양 묵묵히 살아내는데, 그게 백년도 가고 천년도 가고 하는 모양이더군.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4주일(3월15일 금):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5주일(3월22일 금):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P.V. 구역(오후 3시 야외 14처)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 봉헌: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28일) 미사 중

◆ 부활 합동 판공성사: 3월19일(화)

- 참회예절: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공동보속: ①십자가의 길 ②자선1회 ③주모경1회 ④평일미사참석 ⑤선행1회. 이상 다섯가지중 3가지 이상 실행하십시오.

◆ 수요일 평일미사 아침미사로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관계로 타성당으로 출장하십니다. 수요일 평일 저녁미사(3월13일, 20일)가 아침 8시30분으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신자 '교리 재교육' 잘 마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예비자들과 함께 공부한 신자 재교육 교리가 지난 목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도해주신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신부님께 감사 드리며 다시 배운 교리가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3월31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성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3월24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남미 불우이웃 돕기 옷,담요,신발 수거 오늘 마감합니다.

- 오늘주일(10일)까지 배식대열 방
- 헌옷과 담요는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주세요.
- 문의: 박홍룡 빈첸시오회장 ☎(310)283-5879

◆ 요셉회 '레미제라블' 영화 상영

- 일시: 3월17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후, 장당당
- 작품: 1998년판, 한글자막
- 리암 니슨(장발장 역) 주연, 빌 어거스트 감독
- * 문의: 김대우 비오 요셉회장 ☎(310)920-7647

◆ 성경공부(Lectio Divina)반 시작했습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장소: 2층교실(동남쪽) * 지도: 오마우라 수녀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4월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성전
- 대상: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십시오.
- 문의: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 단장 ☎(310)408-1443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부활절을 앞두고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탬이 많으니 한번쯤 들려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문의: 김춘자 막달레나☎(310)539-337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10일(주일): 안나회가 전신자에 친교점심 대접 (우거지콩나물국밥 토런스 동2반 봉사) *주일학교(7학년 파스타)
- 3월17일(주일):故이용식 베드로님 유족이 친교점심 대접 (전주식 소고기국 토런스 서2반 봉사) *주일학교(6학년 햄&치즈&에그샌드위치)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김기정 김병학 김선제 김우용						성전헌금	강인모 김기정 김병학 김선제 김우용 김재희					
	김재영	김재희	김정웅	김종렬	민기남	박씨니		민기남	박씨니	반비오	방정복	변복순	서해영
박종열	반비오	방정복	배기엽	변복순	서해영		신경훈	유경자	윤화경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귀분
신경훈	오명섭	오일순	유경자	윤석구	윤화경		이근모	이남현	이상석	이석진	이은득	이형삼	이형삼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미경		장영우	전정일	정정현	조영희	주용순	홍광선	홍광선
이상석	이석진	이은득	이형삼	임분필	장영우		영희가보라						
전정일	정병훈	정정현	조영희	주용순	현석주								
홍광선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4,065							합계: \$2,172						
주일미사헌금: \$3,033							감사헌금: 최수복 리사이클링: \$107.98						
2차헌금: \$96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사순시기에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중 '십자가의길' 기도를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 * 10일 : 3,4,5학년
- * 17일 : 6,7,8학년 * 24일 : 유치부,1,2학년

◆ 고등부 사순피절

- 일시 : 3월15일(금 오후4시30분 성당출발)~17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집(테메큘라)
- 대상 : 9학년~12학년
- 준비물 : 성경,목주,미사헌금,슬리펄백,재킷,세면도구, 티셔츠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대회 3월24일 마감

- 제목 : 마태오복음(영어)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31일)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문의 : 황선흥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한국학교 교사를 초빙합니다.

- 한국 또는 미국 대학졸업하신분
- 한국학교 관련 연수에 참석할 수 있는 분
-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
- 문의 :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3월16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체대축복)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매주 공동체 앞마당에서 거라지세일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3월24일(주일) 오후 5시장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자마이카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Mission Trip to Jamaica)

- 일정 : 5월4일(토)~12일(주일)까지
- 지도신부 : 이윤희 신부(순교자성당 주임신부)
- 참가비 : \$700(항공료만 부담) * 신청 : 오늘주일(10일)까지
- 문의 : 순교자성당 사무실 ☎(714)897-6510

◆ Food Bank에서 여러가지 식품을 제공합니다.

- 장소 : 가디나 아시안 커뮤니티센터(14112 Kingsley Dr.)
- 오전 9시~낮 12시(신분증 지참하고 오세요.)
- 구인 : 55세이상 시니어 파트타임(주30시간)
- 문의 : 조소영 수산나 ☎(310)804-7645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양금 안나 518-3041 3/9(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23(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6(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3/8(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3/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올리아나 634-6923 3/14(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서성용 베드로 686-3587 3/11(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9(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윤무 스테파노 377-9989 3/8(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재준 요한 541-0765 3/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3/8(금) 저녁미사후 십자가의길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진숙 엘리사벳 617-3568 3/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맛있는 성호경

나는 요리를 잘 못한다. 판에는 노력한답시고 된장찌개나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보지만, 재료비만 왕창 들어가고 맛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다.

웬만해서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나지만, 내 손으로 만든 요리만큼은 왜 이리 용납이 안 되는지. 가끔 이웃 성당의 50년, 100년사 기념집을 보면 과거 선배 선교사들은 왜 하나같이 팔방미인이었는지 놀람과 한숨이 뒤섞여 나온다. 요리뿐만이 아니다. 건축,



의료, 교육, 재봉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절로 묻고 싶어진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가다 보면 왜 주님께서는 이다지도 쓸모없는 놈을 뒤흔들려고 여기까지 부르셨나 하며 생각은 강통속으로 빠져들 때가 많다.

그런데 그 답을 찾았다. 요리를 못하다 보니 자연스레 의식을 자주 하게 되고 그렇게 성당 주변 밥집 할머니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식사기도 하나는 딱 부러지게 배웠는지라 맛나게 성호를 굿고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 흘깃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4년 동안 매일같이 출석도장을 찍었던 우동집 할머니가 하루는 성호경을 굿는 시늉을 하면서 기도인 줄은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면서 물어왔다. 드디어 입질이 온 것이다. 언젠가 이때가 오리라고 준비해 두었던 성성한 답안에 살살 기름칠을 하고 야들야들 구워서 감칠맛 나게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중얼거리지요? 그제 성호경이라는 기도문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야오요로즈(八百万)라고 8백만 명이나 되는 신이 있지요? 세상에 신들이 이렇게 많지만, 제가 믿는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제가 또 이마, 가슴, 양어깨에 십자가를 굿지요? 이것은 삼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 몸의 고통을 통해서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제가 성호경을 그으면 자연스레 제 신앙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성호경은 제가 가진 가톨릭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처럼 누군가 할머니같이 용기 있고, 호기심 많은 분이 보고 와서

몰어보면 설명해 주고, 그렇게 복음 선교를 하게 되지요. 한번 해 보시겠느냐고 하니, 성호굿는 품이 예사롭지가 않다. 혼자 몇번 해봐서 다 외운단다. 내가 선교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교하신다고 했던가? 올해 우리는 ‘신앙의 해’라는 특별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 많은 기도와 극기, 보속도 좋지만, 먼저 내 모든 기도의 첫 단추인 성경 안에 믿음을 가득 채워 갔으면 한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 히로시마 선교

☞ 길을 찾는 그대에게

기도를 하면 분심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나쁜 생각들이 때도 있습니다. 분심이나 나쁜 생각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가요?

오랫동안 기도와 수행에 전념했던 사막의 교부들 중에 요한 카시안은 분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방앗간 주인은 밀이나 가라지 등 빵을 내용물을 바꿀 수 있지만 풍차가 도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머릿도 끊임없이 생각들을 소유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분심을 완전히 조절하고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죄를 짓게 하는 악마는 대부분 우리의 분심의 틈을 타 나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 속에도 분심과 나쁜 생각으로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문득 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어떤 일에 대한 걱정, 잘못된 욕구가 온종일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너무나 나약하여 분심 중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먼저 분심 중에 나쁜 생각으로 쉽게 점령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 26) 이미 일어난 나쁜 생각을 키우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 항상 깨어서 겸손되어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부주임